

직장인의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을 매개, 유지-행동성향을 조절변수로

송창운 (경기대학교 융합교양대학 교양학부 조교수)*
박주영 (승실대학교 경영대학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국 문 요 약

창업관련 기존의 연구는 주로 청년과 대학생, 시니어 창업과 관련한 창업의도에 미치는 선행변수에 대한 연구들과 독립창업, 가맹점 창업, 소상공인 창업 등 창업형태에서의 창업에 대한 영향관계 연구들이 주류이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의도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창업의도를 갖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기존 선행연구에서 창업의도에 적용된 선행변수들이 동일한 영향을 주는지 여부와 유지행동성향이 직장인들의 창업의도에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높은 직장인은 사회적 자본이 높았으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사회적 자본이 직장인의 기업가형 마인드셋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매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어,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직장생활을 통해 형성하게 되는 사회적 자본이 직장인의 창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업가형 마인드셋은 그 자체로만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직장인의 행동성향이 창업의도에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행동성향이 높은 직장인의 경우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았다. 본 연구는 직장인들에게 초점을 맞춘 창업연구로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직장인의 창업의도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며, 단순히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높다고 창업의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성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향후 직장인의 사회적 자본과 행동성향이 창업연구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을 기대한다.

핵심주제어: 기업가형 마인드셋, 사회적 자본, 유지성향, 행동성향, 직장인, 창업의도

1. 서론

최근의 국내외 예측 불가한 경제상황은 기존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벤처, 초기창업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큰 시련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경제 환경적 여건들은 전 세계적으로 기업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계 각국들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본격화로 기존의 일자리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2020. 4)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 고용률은 취업자 감소 영향으로 2.0%p로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조선비즈(2020. 4)에 따르면 상당수 대기업들도 경제여건과 기업경영의 어려움으로 잇달아 희망 퇴직에 나서 인력 구조조정계획을 갖고 있고, 감원바람이 불어 닳치면서 대량 실업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연선옥, 2020)고 한다.

이런 사회·경제적 분위기는 청년 취업 및 창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취업중인 직장인들에게도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보장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뉴스1(2020. 1)에 따르면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직장인 1831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이직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7.6%가 첫 직장을 퇴사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이미 처음 입사한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곧 과거와 같은 ‘평생직장’ 개념은 사실상 사라진 셈(김현기, 2020)이라고 한다.

직장인들도 근무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소속된 조직의 경영 여건, 급여 수준, 업무불만, 승진 및 승급의 한계, 조기 또는 명예퇴직, 가족생계 등 개인의 다양한 여건 등으로 재취업 또는 부업, 창업 등을 심각히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취업의 경우는 모든 퇴직 직장인들에게 보장된 것이 아니며, 부업의 경우는 기업의 윤리규정 및 취업규칙 등에 위배되어 많은 퇴직 및 퇴직예정 직장인들은 창업에 대해 심각히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통 20대 중후반부터 50대까지 진행되는 직장생활과정에서 직장인들은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이직 또는 투 잡, 창업 등을 고려한다. 이 중에서 창업은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직장인들에게도 일자리 부족 및 실업

* 주저자, 경기대학교 융합교양대학 교양학부, 조교수, scw9876@kyonggi.ac.kr

** 교신저자, 승실대학교 경영대학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jpark@ssu.ac.kr

· 투고일: 2020-01-16 · 1차수정일: 2020-04-12 · 2차수정일: 2020-04-24 · 3차수정일: 2020-05-14 · 게재확정일: 2020-06-09

문제를 해소할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창업과 관련하여 국내외 선행연구를 보면 창업의도가 창업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다. 또한 해외 다수의 연구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로 보고,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창업의도 모형은 창업을 설명하는 대표적 모형으로 자리 잡았고 많은 연구자들에게 창업의도는 창업을 설명하는 주된 종속변수로 사용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많은 창업의도 관련 연구들이 있었으며 창업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창업환경, 기업가정신, 창업가특성, 사회적 자본, 셀프 리더십, 사회적지지, 자기결정성 동기 등의 다양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국내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가 주로 청년과 대학생, 이미 퇴직한 시니어, 이미 창업한 창업자들로서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창업의도를 갖고 있는 20대 후반에서 50대까지의 직장인들의 창업의도와 선행변수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청년 또는 대학생들과 직장인들과의 큰 차별점은 직장인들은 조직생활 및 업무를 통하여 얻게 되는 개인적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청년기에 창업이 아닌 취업을 선택해 그 길을 가고 있는 20대 후반에서 50대까지 창업의도를 갖고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대학생, 청년, 시니어 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알려진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선행변수인 기업가정신 마인드셋과 사회적 자본의 영향 관계가 창업의도를 가진 직장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직장인들이 직장생활에서의 업무와 공격 및 사적으로 연계되는 인간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이 개인적 영역인 기업가형 마인드셋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끝으로, 기업가형 마인드셋과 창업의도의 관계를 강화하는 조절변수로 행동성향(Action Orientation)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수립

2.1 이론적 배경

2.1.1 직장인과 기업

직장인은 회사원, 봉급생활자라고도 하며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을 총칭하는 말이며, 일반적으로 화이트칼라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위키백과, 2019). 직장인이 근무하는 직장은 기업이라고 하고 기업은 공기업과 사기업으로 분류된다.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공기업은 공공기관이라 부르고 2019년도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210개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 및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분류되고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분류되며 기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기타공공기관이 있다. 사기업은 대부분 업종별, 매출별, 자산별 등의 기준이 정해져 있고 기타 기술력이 인정되거나 높은 기술력이 바탕 되어 성장과 발전이 계속되는 기업은 벤처기업, 우량기업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단순히 기업 규모 기준으로 기업을 분류하면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과 같이 분류되며 소기업과 중기업을 합하여 중소기업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직장인에 대한 통계는 통계청이 매년 분기마다 제공하고 있으며 2019. 9월 기준으로 직장인이라 할 수 있는 임금근로자는 <표 1>에서와 같이 2,000만 명을 넘어서는 숫자이며, 정규직에 해당하는 인력도 1,300만 명이 넘는 인원이다.

한국경제(2018)에 의하면 260만 개 이상의 미국 내 기업 설립자들의 창업 나이는 평균 41.9세이며, 성공한 창업가들은 46.7세였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공한 창업자들의 직장경험이 창업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기업을 도약시킨 밑거름이 됐다. 따라서 직장인의 창업의도를 살펴보는 것은 직장인 개인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유익한 의미가 있다.

<표 1> 산업별 임금근로자 현황

(단위 : 천명)

산업별	계	정규직	기타	산업별	계	정규직	기타
제조업	3,946	3,277	669	협회·단체 등	726	480	246
도소매업	2,253	1,547	706	보건·사회복지	2,173	1,195	978
정보통신업	777	648	129	교육·서비스업	1,548	919	629
금융·보험업	761	480	281	기타	7,296	3,826	3,470
공공행정 등	1,079	706	373	총계	20,559	13,078	7,481

* 자료원 : 국가통계포털(2018. 8), 산업별 임금근로자 현황 참조 연구자가 정리

2.1.2. 기업가형 마인드셋

직장인의 기업가형 마인드셋(Entrepreneurial Mindset)에 근간이 되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개념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정의가 매우 다양하여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연구자들도 매우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다(이춘우, 2019). 미국의 경제학자 Schumpeter(1934)가 그의 저서 ‘경제발전에 대한 이론’에서 기업가가 새로운 상품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현재의 상품이나 기술을 파괴한다고 주장한 것을 필두로 다양한 학자들을 통해 새롭게 정의되면서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 하는 Drucker(1985)는 “지난 200여 년 동안 기업가정신을 정의 내리는 데 있어 매우 혼란스러움을 느낄 정도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선행 연구들은 기업가정신을 연구목적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Gedeon, 2010 재인용).

기업가정신의 개념에 관한 문헌 연구들을 보면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경영학 등에서 정의되어 왔으며 본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던 초기에는 경제학적으로 정의하였으며 그 중 Schumpeter(1934, 1942)는 기업가정신을 창조적 파괴에 초점을 맞췄고, Cole(1959)은 이윤 지향적 사업을 주도하고 개발하려는 목적적인 활동이라고 했다. 그 후 심리학적 관점에서 McClelland(1961)는 개인의 적절한 위험 도전 성향으로 기업가정신을 정의했으며, 사회학적 관점에서 Hagen(1962)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대응 활동으로 기업가정신을 정의했다.

1970년대 경영학이 학문적으로 발전하면서 경영학적 관점에서 여러 학자들의 정의가 있었으며 Leibenstein(1978)은 기업가정신을 조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조직의 엔트로피를 역전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했으며, Gartner(1985)는 신조직의 창조로 정의했고 Stevenson et al.(1989)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뛰어넘는 기회를 추구하는 활동으로 정의했다. Drucker(1985)는 기업가와 기업가정신은 항상 변화를 탐색하고 반응하며 기회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Shane & Venkataraman(1997)은 미래 제품서비스를 창출하는 기회들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 어떤 효과를 가지면서 발견되고, 평가되어 활용되는 관점에서 기업가정신을 정의했다. 벤처 기업가정신 측면에서 Timmons(1985)는 실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건설하는 능력이 인간 창의적인 실천 행동이라고 정의했고 Hitt et al.(2001)은 이전에 활용되지 않았던 기회의 발견과 활용을 기업가정신으로 정의했다. Zacca & Dayan(2017)은 기업가정신을 이윤 지향적인 사업의 주도과 개발로 정의했다.

이렇듯 기업가정신에 대한 다양한 학문에서와 학자들의 주장과 정의가 있었으나 Miller(1983)는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으로 기업가정신에 대해 세부적인 요소로 구분하여 자원을 재분배 또는 재결합하는 활동을 기업가정신으로 보았다(윤백중, 2011). 이런 기업가정신에 대한 정의는 오늘날 기업가정신 개념에서 기업가정신 마인드셋과 관련이 있다.

Miller(1983)가 제시한 기업가정신 하위요인을 세부적으로 살

펴보면, 혁신성과 관련해 Schumpeter(1934)는 혁신이란 일상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모든 인적 및 물적 요소를 새로이 결합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Drucker(1985)는 혁신성이란 ‘기업가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롭고 이질적인 것, 새로운 유용한 가치를 창조해내는 것’이라고 정의했고 Morris et al.(2008)은 혁신성을 모방(Imitation), 지속적(Continuous) 혁신, 역동적으로 지속적(Dynamically Continuous) 혁신, 불연속적(Discontinuous) 혁신 등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지속적 혁신과 역동적으로 지속적 혁신 사이가 가장 위험이 낮으며, 모방이나 불연속적인 혁신은 위험이 높은 것으로 주장했다. 종합해 볼 때 혁신성은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방법으로 제품을 만들거나 기업 또는 조직의 변화를 촉진하는 것(김영수, 2019)이며, 창의적인 실험을 시도하려는 조직의 자발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김진영, 2019).

진취성과 관련해 Miller(1983)는 진취성이란 새로운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미래를 내다보는 기업가의 미래지향적인 성향으로 경쟁자들의 반응보다 빨리 시장변화에 앞서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속성이라고 보았다. Lumpkin & Dess(1996)는 진취성이 미래의 기회와 시장 수요를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려는 기업의 경향성을 의미하며, 기업이 시장기회를 선점하거나 시장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Covin & Slevin(1990)은 진취적 기업이 다른 기업들보다 공격적으로 경쟁한다고 주장하면서 진취성을 경쟁자에 대한 경쟁의지와 우월한 성과를 산출하려는 도전적 자세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Lumpkin & Dess, 1996).

선행연구를 볼 때, 진취성이란 현재 시장 환경의 변화를 주도하여 경쟁조직에 앞서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고 미래지향적 제품과 서비스를 구체화하는 조직의 특징(김진영, 2019) 및 구성원 또는 개인의 역량으로 정의될 수 있다.

위험감수성과 관련해 Sexton & Bowman(1980)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과감히 도전하려는 의지의 정도으로써 위험을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Covin & Slevin(1990)은 위험감수성이 높은 위험의 프로젝트를 선호하는 경향이며 적극적으로 기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욕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Dess & Lumpkin(2005)은 성공에 대한 결과의 불확실성에도 과감하게 실행하는 경향이라고 주장했다. 위험감수성에 대한 최근의 연구를 보면 Stewart & Roth(2007)는 메타분석 연구를 통해 위험선호성향은 사업의 창업 및 성과에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제시했고, Zhao, et al.(2010)은 메타분석 연구를 통해 위험 감수성이 창업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창업성과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위험감수성과 성장사이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위험감수성은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인 중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전부터 기업가정신의 핵심적 요소로 간주 되어 왔다.

정은주이용진(2019)은 기업가정신 개념을 설명하는 연구들은 기업가정신 행동(behaviors)과 기업가정신 성향(mindset)을 구분하며 기업가적 행동은 기회를 찾고, 정의하며, 창출하는 행동, 변화시도, 문제해결, 자원재조직 등을 포함하고 기업가

정신 성향(mindset)은 개인의 일반적인 태도 및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기업가정신 성향(mindset) 지표로 혁신성,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자율성, 진취성을 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의 기업가형 마인드셋의 하부요인으로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을 사용하였다(Miller 1983).

2.1.3. 사회적 자본

사회학에서 처음으로 논의되어 온 사회적 자본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서로 연결된 사람들 간에 상호 호혜성이라는 규범에 근거하여 교환되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자원’을 일컫는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생산요소 또는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생산수단이라 불리는 전통적 의미의 자본(capital) 개념을 확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Coleman(1990), Burt(1992), Putnam(1995) 등은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개척하는데 기여하였고, 그 이후 사회학을 중심으로 정치학, 경제학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김영수, 2019). Nahapiet & Ghoshal(1998)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 또는 개인 단위가 소유하고 있는 관계 연결망 안에 내재 되어 있고 유용한 잠재적이고 실질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하였다.

Ostrom(2000)은 사회적 자본을 사람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려는 행동을 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구조에 결합된 사회관계와 구조로 보았다. Inkpen & Tsang(2005)는 네트워크 내의 조직이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로부터 발생하고 그러한 관계 속에 포함된 자원의 총합을 의미한다고 봤다.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공동체 내에서 참여와 신뢰는 각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이 서로 관계되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 이 관계를 설명하는 요소가 바로 사회적 네트워크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의 원천으로 사람은 조직구성원이나 개인으로서 사회생활과 조직 생활을 하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한다(이수아, 2019).

Coleman(1988)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직 등 둘 이상의 연결고리로 형성된 관계로 설명할 수 있고 사회적 변화에 따라 사회적 연결에 내재 되고 창조된다고 하였다. 이상 내용을 종합할 때 네트워크는 사회적 행동 혹은 사람들을 연계해 주는 연결의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신뢰는 인지적자본이라 할 수 있고, 구성원들의 표현, 해석, 의미를 공유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다(김형주·전인호, 2017). Robbins & Judge(2007)는 신뢰란 타인의 말과 행동, 의사결정에서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라고 정의하였다. 신뢰는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필수 요소이면서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중요한 요소이며 신뢰와 약속을 중시하는 인성은 예비창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자질이라 할 수 있다(이수아, 2019).

규범은 Nahapiet & Ghoshal(1998)에 따르면 인지적 차원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적절히 행동하도록 하는 방법이나 관계에 대해 공동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으로 공유된 언어,

행동양식, 공유된 목표 그리고 공유된 가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강혁(2017)은 사회적 자본의 요소로서 규범은 개인의 이기심을 방어하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적용되며, 또한, 호혜성에 기초한 공공규범은 사회 구성원 간의 책임 의식을 증진하여 사회협력의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하였으며 규범은 사회적지지, 명예 등등 다른 형태의 보상을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으며, 자기만의 이해관계에 몰입하는 행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Shane & Venkataraman(2000)은 사회적 자본이론이 기업가정신 분야에서 중요한 이론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그 이유는 창업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사회적 자본이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1.4. 유지-행동성향(State-action orientation)

Kuhl(1981)은 행동통제이론(Action-Control Theory)에서 현재 상태와 예정된 미래 상태 간의 차이를 극복하려는 대안적인 행동에 초점을 두는 행동 지향적(action-oriented)인 사람들과 현재, 과거, 미래 상태에 초점을 두는 상태 지향적(state-oriented) 사람들을 구분하여 이들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행동 지향적 성향의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상황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반면, 유지 지향적 사람은 현재의 상황을 보고 미래의 실패 가능성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유양·황윤섭, 2014).

Bagozzi & Baumgartner(1992)은 사람들의 유지-행동성향의 차이가 식료품 쇼핑을 위해 소비자가 자체 보고한 쿠폰 사용과 관련한 합리적 행동이론에서 어떻게 조절변수로 사용되는지를 연구하였다. 상태 지향적 성향에 비해 행동 지향적 성향이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의도를 높게 갖게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즉, 상태 지향적 성향의 사람들이 주관적 규범을 중요시하고 행동 지향적 성향의 사람들이 태도에 있어서 중요성을 증가시켰다.

Koole & Jostmann(2004)은 보통 업무에 대해 압력을 받을 경우 행동 지향적 성향의 사람들은 인지적 통제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고 자기 암시를 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통제하며, 유지 지향적 성향의 사람들은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상황을 도피하는 등 감정을 관리하지 않거나 회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정이 편안한 상태에서는 유지 지향적 성향의 사람들이 행동 지향적 성향의 사람보다도 돋보이는데 이는 유지 지향적 성향의 사람들이 자아 관리 능력 면에서 행동 지향적 사람들보다 더욱 잘 발휘된다고 보았다.

2.1.5. 창업의도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는 자신의 사업을 소유하거나(Crant, 1996) 사업을 시작하려는 욕구(Krueger & Brazeal, 2000)로 정의되며, 기업가정신 분야 내에서 개인적 측면의 연구이면서 통합된 연구 분야이다(김지혜, 2018). Ajzen & Fishbein(1977)은 합리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Behavior: TRB)을 제시하고, 창업의도를 창업과정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과정으로 보았고 의도는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았다. 1980년대 들어와 Shapero & Sokol(1982) 및 Shapcor(1984) 논문들이 발표되면서 창업의도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Bird(1988)는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를 기존의 조직에 고용되는 것에 반대되는 것으로 자신의 사업을 소유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욕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기 고용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행동을 다루는 마음의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또 창업의도란 창업에 대한 행동의 이행을 위한 마음의 상태이며 창업의 모든 과정에 있어 출발 단계로 봤다. Ajzen(1991)은 합리적 행위이론(TRB)에 지각된 행동통제라는 변수를 추가해 의도를 설명하는 모형으로 기존 TRB모형을 수정해 TPB를 제시했다. 이 모형을 통해 의도와 행동은 일치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어떤 의도를 생성한다고 주장했다. 행동에 대한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해 일관성 있게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학습된 경향을 의미하며 주관적 규범은 지각된 준거집단의 의견을 나타내는 증거로 봤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내부와 외부의 제약요인으로 내부통제는 자기효능감과 관련되어 있고 외부통제는 행동을 수행할 때 필요한 자원의 가용성을 말한다.

Chen et. al.(1998)은 기업이 직업선택도, 창업의도, 성과 등을 포함한 기업가정신 연구에서 자기효능의 역할을 규명하였으며, 창업의도는 기업가와 관리자를 구별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았다. 이 연구에서 창업의도는 응답자의 창업에 대한 관심, 고려, 준비, 노력, 가까운 미래 상황에 대한 입장을 측정변수로 봤다. Gelderen et al.(2008)은 경영학을 배우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계획된 행동이론(TPB)을 적용하면서 성별, 직장경험, 부모역할모델, 성격특성 등 추가적 매개변수를 투입해 창업의도에 대한 영향관계를 경험적으로 측정했다. 그 결과 창업의도를 설명하는 중요 두 가지 변수는 기업가적 조심성(alertness)과 재정적 안전성(security)으로 나타났다.

Liñan & Chen(2009)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에서 스페인과 대만에서 창업의도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시험하였으며, 주관적 규범은 창업태도나 지각된 행동통제에 영향을 줌으로써 행동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Fimi, et al.(2012)은 신생 소기업의 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행동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와 같이 창업의도와 관련한 해외연구는 계획적 행동이론 모델에 기반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국내연구에서는 주로 대학생들과 직장을 퇴직한 시니어, 사회적 기업가 등을 대상으로 창업의도를 종속변수로 보고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박남규(2014)는 예비창업자와 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강유미·김재호(2015)는 중장년층의 창업의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홍진기(2016)는 창업자의 개인특성과 사회적자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조영조·이보영(2016)은

사회적 환경이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대학의 창업지원활동과 성공적 역할모델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현선해 외(2016)도 대학생들의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에 강한 영향력을 보여 기존의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조영복 외(2018)는 사회적 기업 및 일반 기업 예비 창업가의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에 강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고, 이수아(2019)는 예비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창업의도를 연구하였다.

김도현 외(2018)는 2000년 이후 국내 주요 학술지에 발표된 기업가정신 관련 논문을 전수조사 하였고 기업가정신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와 모형을 조사한 결과 빈도순으로 독립변수로는 창업의지, 창업동기, 창업교육, 기업가정신, 자기효능감 등 순으로 나타났고, 종속변수로는 창업의도, 창업의지, 창업동기, 기업가적 동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옥준우 외(2020)는 사회적 지지가 창업의도 및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사회적 지지가 창업행동에 정의 영향을 주거나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창업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를 이중매개로 하여서도 창업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듯 창업의도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창업을 설명하는 종속변수로 강력하게 사용되고 있고 본 연구에서도 창업의도를 갖고 있는 직장인들에 대한 선행변수들의 영향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의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했다.

2.2. 가설수립

2.2.1. 기업가형 마인드셋과 사회적자본의 관계

기업가형 마인드셋이라 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은 사람들을 사회, 경제적 세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메커니즘, 실제 창업의 성공 요인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초기기업을 만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창업가의 준비와 자세라고 하였고, Covin & Slevin(1990)에 의하면 기업가정신을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으로 정의(소은영·박성환, 2015)하였고, 실증연구에서도 현재까지도 변인으로 개념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기업가정신의 하위 구성요인인 혁신성은 ‘뛰어난 창의성으로 끊임없이 일상의 관찰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기업가의 역량’을 의미하고, 진취성은 ‘과거나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유행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역량’을, 위험감수성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과감히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역량’으로 개념화되고 있다(김성환 외, 2015; 노경민·신호균, 2015; 오영미·박성환, 2014; 윤백중, 2011; Mueller, 2011).

박지유(2014)는 사회적 자본이 인적, 물적 자본 등과 같은 전통적 자본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기업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무형의 자본, 즉 사람들 간의 관계에 내재된 제3의 자본이라고 정의하였고, 그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인으로 네트워크(Networks), 신뢰

(Trustworthiness), 호혜적 규범(Norms of reciprocity)으로 설명한다고 하였다(홍진기, 2016).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자본의 영향 관계를 규명한 연구 중 안창훈·김선근(2017)은 벤처창업기업 CEO와 임원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이 혁신성가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자본과 지적자본을 매개변수로 보고 연구하였으며 연구결과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기업가정신은 사회적 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성희·이경탁(2017)은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적 자본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기업가정신의 영역을 사회적 기업가로 확장했고 사회적 자본을 구조적 자본, 인적 자본, 관계적 자본으로 구분해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결과를 얻어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적 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했다. 이승훈(2017)은 외식기업경영자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이 사회적 자본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기업가정신이 사회적 자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했다.

이렇듯 국내 여러 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은 사회적 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본 연구의 가설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자본은 중요한 변수들이다. 이런 선행연구 결과가 창업의도를 갖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 1을 수립하였다.

가설 1: 직장인의 기업가형 마인드셋은 사회적 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2. 사회적 자본과 창업의도의 관계

직장인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형성된 내재적 관계인 사회적 자본은 하나의 자원으로서 직장인의 창업의도를 높여 줄 수 있는 변수로서 알려져 왔고,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다. 진창현(2015)은 청년 창업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과 심리적 자본이 청년 창업자의 실행단계인 창업에 대한 의지와 경영성과를 파악하였는데, 사회적 자본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수아(2019)는 예비청년창업자들의 사회적 자본과 창업의도와와의 관계에서 창업 자기효능감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검증결과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자본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국내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본 연구의 가설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자본과 창업의도는 중요한 변수들로 고려된다. 이런 선행연구 결과가 창업의도를 갖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 2와 가설 3을 수립하였다.

가설 2: 직장인의 사회적 자본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직장인의 사회적 자본은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2.2.3. 기업가형 마인드셋과 창업의도의 관계

기업가정신 마인드셋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임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윤지수·현병환(2019)은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수강한 수강생 등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연구결과 기업가정신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준환·김준광(2018)은 정부지원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기업가정신은 창업의도에 유의하고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재형(2018)은 기업가정신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는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됐다. 이렇듯 기업가정신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밝혀지고 있으며 본 연구의 가설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선행 연구의 결과가 창업의도를 갖고 있는 직장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 4를 수립하였다.

가설 4: 직장인의 기업가형 마인드셋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4. 유지-행동성향(State-action orientation)의 조절역할

Kuhl(1978)에 따르면, 행동지향적인 사람들은 미래의 수행에 대해 적극적인 능동성을 보이는 반면, 상태지향적인 사람들은 미래의 수행에 대해 수동성을 보인다(김정원, 1992). 또한 Kuhl(1994)는 행동이 자기조절 능력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유양·황윤섭(2014)에 의하면 계획적 행동이론에 의해서 태도가 행동에 미칠 것이고 자기 조절효과가 강할수록 행동 지향적 성향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게 되지만 유지 지향적 사람들은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많이 받아 권위적인 명령에 상대적으로 잘 순응하여 행동 지향적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선택한 일을 더욱 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Bagozzi & Baumgartner(1992)은 쿠폰을 사용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태도 요인과 주관적 규범 요인으로 구분하고 유지-행동 성향이 어떻게 의도와 행동 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유지-행동성향이 의도와 행동 간에 조절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Jostmann et al.(2005)은 상태 지향적 사람들과 행동 지향적

사람들을 나누고 행동지향성이 잠재적으로 활성화된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지를 실험을 통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연구자들은 행동 지향성이 기본적으로 정서적 반응의 조절요인이라고 결론지었다. Song et al.(2006)은 중국에서 실업자인 구직자들의 샘플을 갖고 계획된 행동이론과 유지-행동 성향 이론에 관한 가설을 시험했다. 연구결과 행동 지향성은 태도와 의도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sfandiari et al.(2019)은 이란의 여러 대학 관광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바람과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각각 지각된 기회를 매개로 한 창업의도와 의 영향관계를 파악했고, 지각된 기회와 창업의도 사이에 행동성향(Propensity to act)을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그 효과를 측정했으며, 그 결과 행동성향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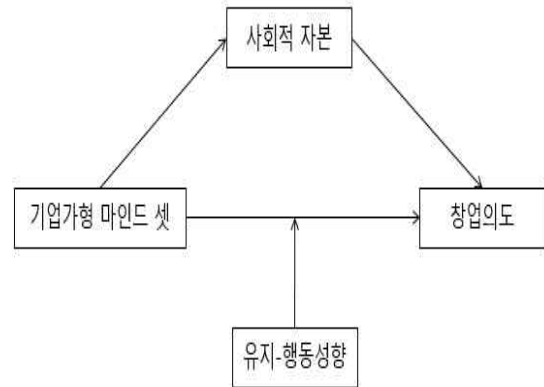
본 연구의 가설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선행 연구의 결과와 같이 창업의도를 갖고 있는 직장인들에게도 유지-행동성향이 동일하게 조절변수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업가정신이 높은 직장인들이 창업의도를 갖는데 있어 행동성향이 창업의도를 높이는 조절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 5를 수립하였다.

가설 5: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높은 직장인들이 행동성향이 높을 경우 창업의도는 높을 것이다.

2.3. 연구모형

2.3.1 연구모형

앞에서의 이론적 고찰과 가설의 개발에서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 증견시니어 창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기업가정신, 사회적 자본, 유지-행동성향, 창업의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언급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자본,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 사회적 자본과 창업의도의 기존 연구에서의 영향관계를 연구하였으며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유지-행동성향이 조절변수로 사용됨을 확인하였다. 이들 각 구성개념들의 세부 구성요인을 볼 때, 기업가정신은 혁신성, 창의성, 위험감수성이 많은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 신뢰, 호혜적 규범 등이 세부 하위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의 이론연구를 바탕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기업가형 마인드셋을 혁신성, 신뢰성, 위험감수성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와 신뢰, 호혜적 규범으로 구성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행동성향이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기업가형 마인드셋과 창업의도 사이를 조절하는가에 초점을 맞춰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설정은 이론적 고찰 결과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며 연구가설 도출과 연구모형 탐색에 유용한 연구의 개념적 틀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그림 1> 연구모형

2.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일반적으로 기업가정신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공통된 정의를 찾아보기 힘들고(김영수, 2019) 국내 선행연구들은 기업가정신 마인드셋을 기업가정신의 구성개념으로 채택하고 있다. 기업가정신 마인드셋 구성개념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와 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의 기업가정신으로 분리하여 고려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직장인의 기업가형 마인드셋은 직장인들이 예비창업자일 것으로 간주되므로 박남규(2014)의 연구에서 제시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인인 혁신성(5문항), 진취성(5문항), 위험감수성(3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구성요인 중 혁신성은 직장인들이 뛰어난 창의성으로 끊임없이 일상의 관찰을 통해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역량으로 정의하고, Miller(1983)와 조병근(2013)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직장인들이 과거의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유행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역량으로 정의되는 진취성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과감히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되는 위험감수성은 Gartner(1985)의 정의를 바탕으로 연구에 맞게 재구성했다.

직장인의 사회적 자본은 직장인이 창업 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와 네트워크를 통해 본인의 창업을 공감해 주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며 홍진기(2016)는 연구에서 네트워크(4문항)와 규범(2문항)으로 제시한 사회적 자본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Nahapiet & Ghoshal(1998)의 정의를 바탕으로 연구에 맞게 재구성되었다.

직장인 개인의 개성에 따른 유지성향과 행동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행동성향은 Kuhl(1985)이 제시한 Decision-related State-versus Action-Oriented Scale을 사용했다. 이 스케일은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변수를 코딩할 때 안정 지향적 성향은 0으로 코딩하고 행동 지향적 성향은 1로 코딩하여 각 응답자의 점수를 더한 것을 근거로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표본이 응답한 20개의 문항들 점수를 더해서 표본들의 평균을 구해 평균보다 높은 응답자들은 행동 지향적 성향으로 분류하고 평균보다 낮은 응답자들은 상태 지향적 성향으로 분류해 두 집단으로 구분했다.

창업의도는 직장인이 미래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 혹은 가능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hen et. al.(1998)의 구성개념 즉, 창업에 대한 관심, 고려, 준비, 노력, 가까운 미래 상황 등을 묻는 5가지 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했다.

III. 실증연구

3.1.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수도권 소재 공기업과 중소기업이

상 사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창업의도에 관심을 보이는 직장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판단 표본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209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일관성이 없이 대답한 8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201부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포는 <표 2>에 제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들 201명 중 사기업 직장인이 76.6%, 공기업 직장인이 23.4%로 나타났고 직장 근무 연수를 보면 5년 미만이 26.4%, 5년에서 10년 미만이 15.4%,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16.9%, 15년에서 20년 미만이 15.9%, 20년 이상이 25.4%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항목	구분	빈도	%	항목	구분	빈도	%
성별	남	153	76.1	연령	20대	34	16.9
	여	48	23.9		30대	63	31.3
직업	사기업	154	76.6		40대	55	27.4
	공기업	47	23.4		50대 이상	49	24.4
직장 연한	5년 미만	53	26.4		학력	고졸이하	3
	5-10년	31	15.4	전문대졸업		6	3.0
	10-15년	34	16.9	대학졸업		121	60.2
	15-20년	32	15.9	대학원이상		71	35.3
	20년 이상	51	25.4	계	201	100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PSS Statistics 22를 이용하여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하였고,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여 측정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았다.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측정도구의 집중타당도(AVE, CR)를 알아보기 위해 AMOS 21을 활용하였으며, 각 측정도구들의 연구모형 상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v3.4를 이용하였으며, 분석에서 유의수준 α 는 0.05이다.

3.2.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측정도구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샘플의 적정성을 검사하기 위해 KMO와 Bartlett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투입된 변수의 KMO 표본 적합도는 모두 0.7이상이었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증도 모두 $p=.000$ 의 수준에서 유의하여 정규성이 확보되어 요인분석의 가정을 모두 만족하였다. 척도의 요인분석은 베리맥스 회전방식으로 고유 값 1이상의 주성분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측정도구의 타당도, 신뢰도 검증

측정도구	문항	1요인	2요인	3요인	4요인	5요인	6요인	Cronbach's α	
사 회 적 자 본	네트워크1		.762					.703	
	네트워크2		.805						
	네트워크3		.683						
	네트워크4		.557						
		규범1						.806	.662
		규범2						.788	
기 업 가	혁신성1				.805			.728	
	혁신성2				.783				
	혁신성3				.719				
	혁신성4								

형 마 인 드 셋	진취성1 진취성4 진취성5					.660 .826 .842		.721
	위험감수성1 위험감수성2 위험감수성3		.756 .832 .749					.753
창 업 의 도	창업의도2 창업의도3 창업의도4 창업의도5	.802 .889 .827 .870						.876
고유치(Eigen Value)		4.402	2.629	2.205	1.310	1.231	1.067	
설명된 변량(Percentage of Variance)		23.169	13.836	11.606	6.895	6.481	5.615	
누적변량 (Cumulative Percentage)		23.169	37.005	48.610	55.505	61.986	67.601	

3.3. 측정도구의 상관관계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와 집중타당도를 나타내는 AVE, CR값을 살펴 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대부분의 상관관계가 .3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보다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해 공차한계 (Tolerance limit) 및 분산팽창계수(KIF)를 살펴 본 결과 공차한계가 .10보다 크고 분산팽창계수는 1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

나 주요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의 집중타당도를 살펴보는 AVE(평균분산추출)값은 통상적으로 .5이상일 때 측정도구가 관측변인과 타당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관측변인이 측정도구를 50%이상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CR(개념신뢰도)값 역시 집중타당도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7이상일 때 집중타당도가 양호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AVE 및 CR은 모두 관련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 측정도구의 집중타당도는 양호하다.

<표 4> 측정도구(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1	2	3	AVE	CR
1. 기업가형 마인드셋	1			.6174	.8249
2. 사회적 자본	.212**	1		.7129	.8305
3. 창업의도	.196**	.283**	1	.7138	.9085
**p<0.05					

3.4. 회귀분석 결과

직장인의 기업가형 마인드셋과 창업의도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와 유지-행동성향의 조절효과, 통제변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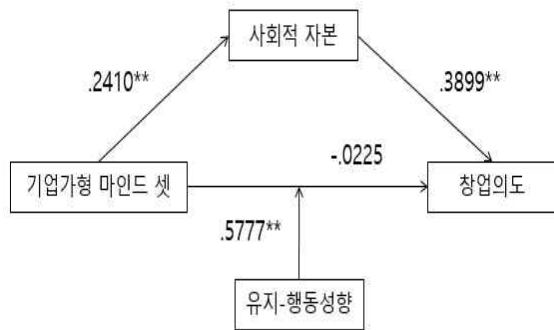
직장인의 근속연수를 살펴보기 위해 PROCESS Macro 3.4를 이용하여 Model 5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와 유지_행동성향의 조절효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 사회적 자본		종속변수 : 창업의도		
	계수	95% CI	계수	95% CI	
기업가형 마인드셋 (a)	.2410**	(.0860 .3960)	-.0225	(-.3621 .3170)	
사회적 자본(b)			.3899***	(.1737 .6062)	
유지_행동성향(c)			-2.1679**	(-4.0192 -.3165)	
기업가형 마인드셋(a) × 유지_행동성향(c)			.5777**	(.0910 1.0645)	
		R2=.0451, F=9.4008, p=.0025		R2=.1241, F=6.9423, p=.0000	
a×b (간접효과)	.0940**	(.0910 1.0645)	.2410×.3899		
총효과	.0715	직접효과(-.0225)+간접효과(.0940)			
** p<0.05 *** p<0.000					

3.4.1.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직장인의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모형은 F값이 9.4008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25$). 독립변수인 기업가형 마인드셋의 비표준화 회귀계수는 .241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25$). 다음 기업가형 마인드셋과 사회적 자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간접효과 유의성에서는 모형의 F값이 6.9423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00$). 기업가형 마인드셋의 비표준화 회귀계수는 -.0225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지만($p=.8961$) 매개변수인 사회적 자본의 비표준화 회귀계수는 .3899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p=.0005$) 연구모형에서의 매개모형은 완전매개효과가 존재한다. 따라서 가설 1과 가설 2, 가설 3은 채택되었고, 가설 4는 기각되었다.



<그림 2> 통계분석 결과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모형의 매개효과에서 직접효과는 -.0225이고 간접효과는 .0940이다. 간접효과 .0940의 의미는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한 단위 더 큰 직장인의 창업의도는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한 단위 더 작은 직장인의 창업의도보다 사회적 자본을 통하여 .0940만큼 더 크게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총 효과는 .0715이며 간접효과인 .0940은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2410과 사회적 자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3899를 곱한 값으로 산출된다. 즉,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효과 .2410은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한 단위 더 큰 직장인이 사회적 자본이 .2410 만큼 더 크게 나타났음을 보여주며, 동일한 기업가형 마인드셋을 가지면서 사회적 자본이 한 단위 더 큰 직장인이 .3899만큼 창업의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매개효과에서 주 관심사인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간접효과 .0940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ROCESS Macro에서는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야 간접효과가 $\alpha=0.05$ 수준에서 유의하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매개효과에서 간접효과는 하한 값이 .0910이고 상한 값이 1.0645이므로 하한 값과 상한 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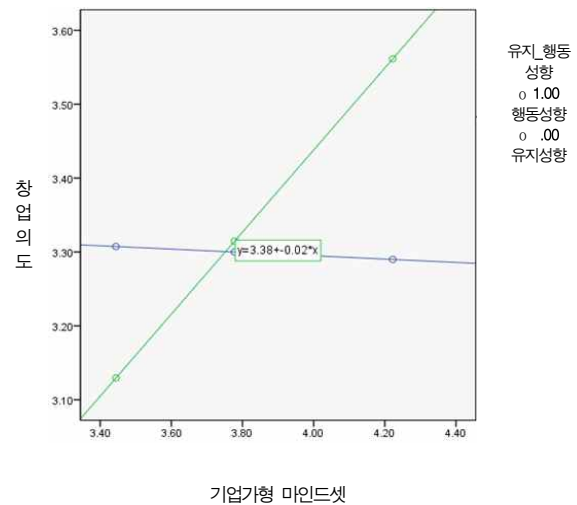
3.4.2. 유지-행동성향의 조절효과

직장인의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유지-행동성향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ROCESS Macro로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상호작용 항 변수계산을 하지 않았으며, 분석 모델의 설명력은 F값이 6.9423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00$).

독립변수인 기업가형 마인드셋의 비표준화 회귀계수는 -.0225이나 유의하지 않았다($p=.8961$). 조절변수인 유지_행동성향의 변수는 유지성향을 0, 행동성향을 1로 더미변수 처리했으며, 행동성향의 경우는 -2.0041로 유의했다($p=.0251$).

기업가형 마인드셋과 유지-행동성향을 곱한 상호작용 변수의 비표준화 회귀계수는 <그림 2>에 표시된 바와 같이 .5777로 유의($p=.0202$)했다. 따라서 가설 5는 채택되었다.

유지-행동성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Johnson-Neyman분석을 추가로 실시해 조절효과를 그래프로 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조절효과 그래프

유지-행동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정도는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낮을 때에는 유지성향의 직장인이 행동성향의 직장인보다 창업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지성향의 경우 더미변수가 0으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행동성향의 경우에는 비표준화 회귀계수가 -2.1679로 유의하였고($p=.0220$) 기업가형 마인드셋과 행동성향의 상호작용 변수가 .5777로 유의($p=.0202$)하여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높아짐에 따라 행동성향의 직장인이 창업의도가 높은 것을 보여준다. 즉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높은 직장인들이 행동성향일 경우 높은 창업의도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IV. 토론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들의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사회적 자본을 매개변수로, 유지·행동 성향을 조절변수로 투입해 창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 보았다. 연구결과 직장인의 기업가형 마인드셋은 사회적 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자본은 직장인의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았다. 다만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창업의도를 갖고 있는 직장인들에게는 창업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직장인의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행동성향을 조절변수로 할 때에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해외 선행연구들에서도 행동성향은 대표적인 조절변수로 밝혀져(Bagozzi & Baumgartner, 1992; Jostmann et al., 2005; Song et al., 2006)있어, 본 연구에서도 행동성향을 독립변수인 기업가형 마인드셋의 조절변수로 투입해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 선행연구들과 같은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업가정신 마인드셋이 사회적 자본은 매개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에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행동성향이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채택했고, 이를 직장인들을 연구대상으로 한 것이 기존연구와 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창업모델연구에서 종속변수로서 사용된 창업의도는 본 연구에서도 종속변수로 사용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창업의도는 직장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실제 창업에 대한 관심과 준비, 노력 등을 물어 봄으로서 실제적으로 직장인이 창업에 대한 의사를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확인된 직장인을 대상으로 선행변수들의 영향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직장인의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직장인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데 있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온 선행연구 결과와 달리 직장인의 기업가형 마인드셋은 그 자체로 직장인의 창업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기업가형 마인드셋은 사회적 자본의 매개를 통해서 창업의도를 갖게 된다. 셋째, 개인의 행동성향이 높은 경우에는 직장인의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기존 대부분의 연구가 대학생과 시니어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의도 연구였음에 착안하고 청년기를 지나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며 창업이 아닌 직장을 선택한 직장인들의 창업의도와 선행변수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점에서 실무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직장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변수가 있을 수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못했고, 환경영향 변수와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

서 영향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변수통제를 연구설계에 반영하지 못했다. 둘째, 직장인들의 창업은 직장 배경과 경험분야에 따라 창업의도가 기회추구형 창업의도, 생계형 창업의도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음에도 직장인의 구분과 이에 따른 세분화된 창업의도를 구분치 않고 직장인과 창업의도를 일반화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셋째, 연구 대상인 직장인들 중 상당수가 현실적으로 창업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창업의도에 관심이 없는 직장인들이 많아, 창업의도에 관심이 있는 직장인을 찾아 조사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표본추출방법 상 한계가 있었다. 넷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기업가형 마인드셋과 창업의도의 영향관계에서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추가적인 연구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창업의도 연구에서 창업의도를 갖는 직장인과 창업의도를 갖지 않는 직장인을 모두 연구대상에 포함하여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들의 영향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장배경과 경험을 세분화하여 분리하고 이에 따른 유형별 창업의도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정년이 보장되는 공기업과 경쟁력과 능력을 기반으로 한 사기업을 비교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창업과 재취업 의도를 놓고 직장인들의 선행변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의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직장인들의 근속연수 또는 연령에 따라 창업의도가 다를 수 있음을 반영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기 창업한 창업가들과 직장인들을 비교한 창업관련 변수를 규명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

- 강유미·김재호(2015). 중장년층의 심리적 특성과 창업환경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및 개인자산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 10(3), 25-49.
- 김도현·김도형·박계현·이수용·임은찬·정동관·정수성·최민혜·최운수·황병호(2017). 앙트러프러너십은 경영학과 다른 학문인가?. *벤처창업연구*, 12(3), 1-36.
- 김성환·복경수·박재춘(2015).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5), 15-26.
- 김영수(2019). *기업가정신: 이론과 실천*. 서울: 학현사.
- 김정원(1992). *행동 대 상태 지향적 학습자의 목표설정원 및 목표난이도에 따른 학업성취 수행수준과 실패이후의 반응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김지혜(2018). *한중 대학생의 주관적 규범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숭실대학교.
- 김진영(2019). 기업가지향성이 중소기업의 기업가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 지식역량의 매개효과 분석. *벤처창업연구*, 14(2), 83-93.
- 김현기(2020.1.30.). '평생직장은 없다... 직장인 10명 중 9명 '첫 회사 이미 떠난 상태'. 뉴스1, Retrieved from <https://www.news1.kr/articles/?3828450>
- 김형주·전인오(2017).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매

- 개효과가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2(5), 55-66.
- 노경민·신호균(2015). 사회적 기업가의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창업의 지와의 관계. *한국창업학회지*, 10(1), 93-111.
- 박남규(2014). *창업지원정책 및 창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사업실패부담감 및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고려하여* 박사학위 논문, 호서대학교.
- 소은영·박성환(2015). 소상공인의 기업가정신이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30(1), 245-264.
- 박지유(2014). *창업가 특성과 사회적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멘토링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 안창훈·김선근(2017). 기업가정신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적 자본과 지적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영과 정보연구*, 36(2), 261-276.
- 양준환·김준광(2018). 청소년이 인지한 관계적 지원, 기업가정신 및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13(6), 74-97.
- 연선옥(2020.4.16.). *세계에 불어닥친 '감원' 칼바람... '대량실업' 공포* 조선비즈, Retrieved from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6/2020041601988.html
- 오영미·박성환(2014). 기업가정신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경영컨설팅연구*, 14(2), 199-221.
- 육준우·현병환·장은실·양재민(2020). 사회적 지지가 창업의도 및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의 매개효과. *벤처창업연구*, 15(1), 151-165.
- 위키백과(2019). *직장인* Retrieved 2019.12.21. from <https://ko.wikipedia.org/wiki/%EC%A7%81%EC%9E%A5%EC%9D%B8>
- 유양·황윤섭(2014). 소비자의 state-action orientation(SAO)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행동 영향요인 분석: 중국소비자를 대상으로. *통상정보연구*, 16(3), 331-355.
- 윤백중(2011). *대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창업동기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박사학위 논문, 호서대학교.
- 윤지수·현병환(2019).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영과 정보연구*, 38(3), 171-186.
- 이강혁(2017). *사회적 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관계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이수아(2019). *예비청년창업가의 기업가정신 사회적 자본,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분석*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이승훈(2017). 외식기업 경영자의 기업가정신이 사회적 자본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외식산업경영연구*, 13(2), 25-48.
- 이춘우(2019). 기업가정신과 기업가의 정의와 통합모형: 직무관점 및 역량모델 관점의 적용. *중소기업연구*, 41(1), 97-129.
- 장성희·이경탁(2017).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적 자본과 기업성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창업학회지*, 12(2), 256-277.
- 정은주·이용진(2019). 대학생용 기업가정신 성향지표 및 역량지표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교육학연구*, 25(2), 259-287.
- 조영복·손진현·정기범·이나영(2018). 사회적 기업 및 일반기업 예비창업가의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벤처창업연구*, 13(1), 89-104.
- 조영조·이보영(2016). 사회적 환경이 대학생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1(4), 17-25.
- 진창현(2015). 청년 창업인의 사회심리적 자본이 창업의도 및 창업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글로벌경영학회지*, 12(3), 69-87.
- 통계청(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Retrieved (2020. 5.14)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
- 한국경제 사설(2018.3.11.). '청년 창업' 넘어 '직장인 창업' 확 커 우자. 한국경제, Retrieved from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8031148451>
- 현신해·서문교·권인수(2016). 대학생의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 및 취업스트레스 관계에서 핵심자기평가의 조절효과연구. *벤처창업연구*, 11(6), 39-49.
- 홍진기(2016). *창업자의 개인특성, 사회적 자본, 창업정책환경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과 가치지향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Ahn, C. H., & Kim, S. G.(2017).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on Innovation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and Intellectual Capital. *Daehan Academy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36(2), 261-276.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jzen, I., & Fishbein, M.(1977). Attitude-behavior relations: A theoretical analysis and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84(5), 888-918.
- Bagozzi, R., & Baumgartner, H.(1992). State versus Action Orientation and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An Application to Coupon Usag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8, 505-518.
- Bird, B.(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42-453.
- Burt, R. S.(1992).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hen, C. C., Greene, P. G., & Crick, A.(1998). Doe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Distinguish Entrepreneurs from Mange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4), 295-316.
- Cho, Y. B., Son, J. H., Jung, K. B., & Lee, N.(2018). The Impa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Preliminary Social Entrepreneurs and General Entrepreneurs: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e and Entrepreneurship*, 13(1), 89-104.
- Cho, Y. J., & Lee, B. Y.(2016). A Study on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e and Entrepreneurship*, 11(4), 17-25.
- Coleman, J. 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Covin, J. G., & Slevin, D. P.(1990). Juggling Entrepreneurial Style and Organizational Structure-How to Get Your Act Together. *Sloan Management Review*, 31(2), 43.
- Crant, J. M.(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3), 42-49.
- Dess, G. G., & Lumpkin, T.(2005). The role of

-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n Simulating Effective Corporate Entrepreneurship.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19(1), 147-156.
- Drucker, P. F.(1985).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Practice and Principles*, Harper & Row, New York.
- Esfandiar, K., Sharifi-Tehrani, M., Pratt, S., & Altinay, L.(2019). Understand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A developed integrated structural model approach.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94, 172-182.
- Fini, R., Grimaldi, R., Marzocchi, G. L., & Sborero, M.(2012). The determinants of corporate entrepreneurial intention within small and newly established firm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87-414.
- Gartner, W. B.(1985). A Conceptual Framework for Describing the Phenomenon of New Venture Cre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 696-706.
- Gelderen, M., Brand, M., Praag, M., Bodewes, W., Poutsma, E., & Gils, A.(2008). Explain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by means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13(6), 538-559.
- Hagen, E. E.(1962). *On the Theory of Social Change*, New York: Wiley.
- Hangugyeongje editorial(2018.3.11.). *Let's build up 'workplace entrepreneurship' beyond 'youth start-up'*, Hangugyeongje, Retrieved from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8031148451>
- Hitt, M. A., Ireland, R. D., Camp, S. M., Sexton, D. L.(2001). Strategic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strategies for wealth crea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2(6-7), 479-491.
- Hong, J. K.(2016).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Social Capital, Foundation Policy Environment of Founder: Focusing on comparison between adult Entrepreneurship and Value Orientation*. Doctoral dissertation, Seoul Venture University.
- Hyun, S. H., Seo, M. K., & Kwon, I. S.(2016). The Moderating Effects of Core-Self Evalu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Job-Seeking Str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e and Entrepreneurship*, 11(6), 39-49.
- Inkpen, A. C., & Tsang, W. K.(2005). Social Capital, Networks, and Knowledge Transfer.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0(1), 146-165.
- Jang, S. H., & Lee, K, T.(2017). The Effects of Social Entrepreneurship and Social Capital on Enterprises Performance. *The Koera Entrepreneurship Society*, 12(2), 256-277.
- Jin, C. H.(2015). The Effects of An Entrepreneur's Social and Psychological Capital on Enterprise Start-up Intention and Performance, *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 Review*, 12(3), 69-87.
- Jostmann, N. B., & Koole, S. L.(2005). *On the regulation of cognitive control: Action orientation moderates the impact of external demands in Stroop-like interference tasks*. Unpublished manuscript. Free University of Amsterdam, the Netherlands.
- Jung, E., & Lee, Y.(201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Indicators to Measure Entrepreneurial Mindset and Competency Scales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5(2), 259-287.
- Kang, Y. M., & Kim, J.(2015). A Study on the Exploration of Influencing Factor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Korean Midle-Aged and the Elderly People. *The Korea Entrepreneurship Society*, 10(3), 25-49.
- Kim, D., Park, K., Lee, S., Lim, E., Jung, D., Jung, S., Choi, Y. & Hwang, B.(2017). Is Entrepreneurship Different from Management?.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3), 1-36.
- Kim, H.(2020.1.30.). *'There is no lifetime'... 9 out of 10 workers 'the first company has already left'*. News1, Retrieved from <https://www.news1.kr/articles/?3828450>
- Kim, H. J., & Jeon, I. O.(2017). The Influence of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Social Entrepreneurship.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5), 55-66.
- Kim, J.(2019). Impact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Entrepreneurial Performance: The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ial Knowledge Posi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2), 83-93.
- Kim, J. H.(2018). *The Effects of Subjective Norm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Korean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 Kim, J. W.(1992). *A Study on Learner's Academic Achievement and Response to the Failure resulted from the Action vs. State Oriented Learner's Goal Sourcee and Goal Difficulty*.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Kim, S. H., Bok, K. S., & Park, J. C.(2015). Relationship Among Self-Determinati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5), 15-26.
- Kim, Y. S.(2019).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Seoul: Hak Hyun Sa Press.
- Koole, S. L., & Jostmann, N. B.(2004). Getting a Grip on Your feelings: Effects of Action Orientation and External Demands on Intuitive Affect 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87, 974-990.
- Krueger Jr., N. F., & Brazeal, D. V.(1994).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91-104.
- Kuhl, J.(1978). Speech perception by the chinchilla: Identification function for synthetic VOT stimuli.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63(3), 905-917.
- Kuhl, J.(1981). Motivational and functional helplessness: The moderating effect of state versus action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1), 155-170
- Kuhl, J.(1985). Volitional Mediators of Cognition-Behavior

- Consistency: Self-regulatory Processes and Action versus State Orientation. in *Action Control: From Cognition to Behavior*, ed. Julius Kuhl and Jeurgen Beckmann, New York; Springer, 101-128.
- Kuhl, J.(1994). Motivation and volition. In G. d'Ydewalle, P. Eelen, & P. Bertelson (Eds.).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2, 311-340.
- Lee, C.(2019). A Conceptual Synthesis Model of the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 with Perspectives of Job and Competence Model.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41(1), 97-129.
- Lee, K. H.(2017). *A Study on Relationships and Influential Factors between Social Capital and Local Governance: Focused on Daejeon Metropolitan City*. Doctoral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Lee, S. A.(2019). *Analysis of Entrepreneurship, Social Capital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young pre-entrepreneur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Moderating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Doctoral dissertation, Kyunggi University.
- Lee, S. H.(2017). The Effect of Food Service Company Entrepreneurship on Social Capital and Job Performance. *Korean Academy of Foodservice Industry and Management*, 13(2), 25-48.
- Leibenstein, H.(1978). *General X-Efficiency Theory and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iñán, F., & Chen, Y. W.(2009). Development and Cross-Cultural Application of a Specific Instrument to Measure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3), 593-617.
- Lumpkin, G. T., & Dess, G. G.(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135-172.
- McClelland, D. C.(1961). *The Achieving Society*, New York: D. Van Nostrand.
- Miller, D.(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 Morris, M. H., Kuratko, D. F., & Covin, J. G.(2008). *Corporate Entrepreneurship & Innovation, Entrepreneurial Development within Organizations*. Thomson South-Western, Second Edition.
- Nahapiet, J., & Ghoshal, S.(1998). Social Capital, Intellectual Capital, and the Organizational Advantag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2). 242-266.
- Noh, K. M., & Shin, H. K.(2015).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Social Entrepreneur. *The Korea Entrepreneurship Society*, 10(1), 93-111.
- Oh, Y. M., & Park, S. W.(2014).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on Start-up Intention.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14(2), 199-221.
- Ok, J. W., Hyun, B. W., Chang, E. S., & Yang, J. M.(2020).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1), 151-165.
- Ostrom, E.(2000). Collective Action and the Evolution of Social Norm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4(3). 137-158.
- Park, J. Y.(2014).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Capital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ing the effects of mentoring*.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 Park, N. G.(2014).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and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Considering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Business Failure Burden and the Self-Efficacy*.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 Putnam, R. D.(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 65-78.
- Robbins, S. P., & Judge, T. A.(2007). Organiz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behavior*, 28-50.
- Shapiro, A.(1984). *The Entrepreneurial Event*, In C. A. Kent Ed., *The environment for entrepreneurship*. M.A. Lexington Books, Toronto, 21-40.
- Shane, S., & Venkataraman, S.(2000).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217-223.
- Shapiro, A., & Sokol, L.(1982).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72-90.
- Schumpeter, J. A.(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chumpeter, J. A.(1942).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York, Harper.
- Sexton, D. L., & Bowman, N.(1980). Risk Taking Propensity of Entrepreneur.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3, 509-520.
- So, E. Y., & Park, S. W.(2015). The Effect of the Entrepreneurship of Small Business Owners on their Financial Performance. *Korea Association of Business Education*, 30(1), 245-264.
- Song, Z., Wanberg, C., Niu, X., & Xie, Y.(2006). Action-state orientation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study of job search in China.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8, 490-503.
- Statistic Korea(2020).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Retrieved (2020. 5.14)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
- Stevenson, H. H., Roberts, M. J., & Grousbeck, H. I.(1989). *New Business Ventures and the Entrepreneur*, Homewood, IL: Richard D. Irwin.
- Stewart, W. H., & Roth, P. L.(2007). A meta-analysis of achievement motivation differences between entrepreneurs and manager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5(4).
- Timmons, J. A.(1985). *New Venture Creation(4th ed.)*. Tata McGraw-Hill Education.
- Wikipedia(2019). *직장인*. Retrieved 2019.12.21. from <https://ko.wikipedia.org/wiki/%EC%A7%81%EC%9E%A5%EC%9D%B8>

- Yang, J. H., & Kim, C. K.(2018). The Effects of Perceived Relational Support, Entrepreneurship and Self-Efficacy of Youth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e Korea Entrepreneurship Society*, 13(6), 74-97.
- Yeon, S. O.(2020.4.16.). *The 'reduction' wind blows into the business world... the 'mass unemployment' is proclaimed*, *Chosun Biz*. Retrieved from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6/2020041601988.html
- Yoon, B. J.(2011).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spirit and motivation-driven entrepreneurship on establishment of new business by undergraduat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 Yoon, J. S., & Hyun, B. H.(2019). A Study on Effect of the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Daehan Academy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38(3), 261-276.
- You, Y., & Hwang, Y. S.(2014). An Analysis on the Factors Affecting Green Product Purchasing Behavior with Regard to State-Action Orientation(SAO): Focus on Chinese Urban Consumers.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16(3), 331-355.
- Zacca, R., & Dayan, M.(2017). Entrepreneurship: An evolving conceptual frame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Management*, 21(1/2), 8-26.
- Zhao, H., Seibert, S. E., & Lumpkin, G. T.(2010). The relationship of personality to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performance: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Management*, 36(2), 381-404.

How Entrepreneurial Mindset of Office Workers Affects Entrepreneurial Intention: Roles of Social Capital and State-action Orientation

Chang-Woon Song*

Ju-Young Park**

Abstract

The majority of previous research on start-ups consist of research on leading variables that affect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related to start-ups established by young people, college students or senior citizens, and the influencing relationships regarding start-ups in the sense of their form such as independent start-ups, franchising start-ups, small business start-ups, etc. It is difficult to find research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targeting office worker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question of how office workers' entrepreneurial mindset affects their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ing on mediating role of social capital and moderating role of state-action orientation. We use survey data to empirically test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ables in question. This study finds the presence of the positive effect of entrepreneurial mindset on social capital that significantly promotes entrepreneurial intention, demonstrating mediating role of social capital. We understand the existence of moderator, action state, showing that entrepreneurial intention is affected by interaction of entrepreneurial mindset and action state, not entrepreneurial mindset alone. We propose some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lists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Keywords: Entrepreneurial mindset, Social Capital, State Orientation, Action Orientation, Office Worker, Entrepreneurial Intention

* First author,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Liberal Arts, Kyonggi University, scw9876@kyonggi.ac.kr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Soongsil University, jpark@ssu.ac.kr